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손이 호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어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어
길우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 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겨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것은 다만,
잃은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9.31 (綴りは初版による)

道

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何をどこになくしたかもわからず
両手でポケットを探って
道に出て行きます。

石と石と石が 果てしなく続き
道は石垣に沿って行きます。

垣は鉄の門を固く閉ざし
道の上に長い陰を落として

道は朝から夕べに
夕べから朝に 通じています。

石垣をまさぐって 涙を流し
見上げれば 天は恥ずかしいほど青いのです。

草1本生えていない この道を歩いてゆくのは
垣の向こうに わたしが残っているからで

わたしが生きるのは ただ
なくしたものを見つけるためなのです。

무서운 시간

저 나를 부르는것이 누구요.

가랑뿔 잎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呼吸이 남아 있소.

한번도 손들어 보지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들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뿔이 떨어질텐데.....

나를 부르지마오.

1941.2.7

(綴りは初版による)

恐ろしい時間

その わたしを呼ぶのは だれですか。

柏の葉っぱが青々と出てくる陰ですが、
わたしはまだここに息が残っています。

一度も手を上げてみることもできないわたしを
手を上げて示す天もないわたしを

どこにわたしの身を置く天があつて
わたしを呼ぶのですか。

事が終わってわたしが死ぬ日の朝には
悲しくもない枯れ葉が散るでしょうが……

わたしを呼ばないでください。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운 진정코 설운 대답이다.

슬며 — 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1938.9.15

弟の印象画

赤い額に 冷たい月が差し
弟の顔は 悲しい絵だ。

歩みを止め
そっと幼い手を握って
「お前は大きくなったら何になる」

「人になる」
弟の悲しい ほんとうに悲しい答だ。

そおっと 握っていた手を放し
弟の顔を もう一度見つめる。

冷たい月が 赤い額に濡れ、
弟の顔は 悲しい絵だ。

별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취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星を数える夜

季節が移りゆく天には
秋でいっぱい 満ちています。

わたしはなんの心配もなく
秋の中の星々をみな数えられそうです。

胸の中の ひとつ ふたつと 刻まれる星を
今すべて数えきれないのは
すぐに朝が来るからで、
明日の夜が残っているからで、
まだわたしの青春が尽きていないからです。

星ひとつに 追憶と
星ひとつに 愛と
星ひとつに 寂しさと
星ひとつに 憧れと
星ひとつに 詩と
星ひとつに お母さん、お母さん、

お母さん、わたしは星ひとつに美しい言葉をひとことずつ呼んでみます。
小学校のとき机を並べた子らの名まえと、佩、^ベ鏡、^{キョウ}玉、^{オク}このような異国の
少女たちの名まえと、すでに赤ちゃんのお母さんとなった娘たちの名まえ
と、貧しい隣人たちの名まえと、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뜬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

1941.11.5

鳩、小犬、兎、らば、鹿、フランシス・ジャム、ライナー・マリア・リル
ケ、このような詩人の名まえを呼んでみます。

これらの人たちはあまりにも遠くにいます。
星がはるかに遠いように、

お母さん、
そしてあなたは遠く北間島^{フッカンド}におられます。

わたしは何か恋しくて
このたくさんの星の光が降った丘の上に
わたしの名まえの字を書いてみて、
土でおおってしまいました。

たしかに 夜を明かして鳴く虫は
恥ずかしい名を悲しんでいるからです。

けれども冬が過ぎて わたしの星にも春が来れば
墓の上に青い芝草が萌え出るように
わたしの名まえの字がうずめられた丘の上にも
誇らしく草が生い繁るでしょう。

少年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우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섭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쓰서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1939

(綴りは初版による)

少年

そこかしこ紅葉のような悲しい秋がはらはらと落ちる。紅葉が落ちてきたところごとに春を備えて、木の枝の上に空が広がっている。そっと空をのぞき見ようとすると、眉毛が青く染まる。両手で温かい頬を撫でてみると、手のひらも青く染まる。もう一度手のひらをのぞき見る。手の筋には澄んだ川の水が流れ、澄んだ川の水が流れ、川の水の中にはいとしくも悲しい顔 — 美しい順伊^{スニ}の顔が映る。少年はうっとり目を閉じてみる。なおも澄んだ川の水は流れ、いとしくも悲しい顔 — 美しい順伊^{スニ}の顔は映る。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

1941.5.31

追いかけてきた日の光が
いま 教会堂の尖端
十字架にかかりました。

尖塔があれほど高いのに
どうして登ってゆけるでしょうか。

鐘の音も聞こえてこず
口笛でも吹きつつ さまよい歩いて、

苦しんだ男、
幸福なイエス・キリストにとって
そうだったように
十字架が許されるのなら

首を垂れ
花のように咲きだす血を
暗くなってゆく天の下に
静かに流しましょう。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11.20

序詩

死ぬ日まで天を仰ぎ
一点の恥なきことを、
木の葉に起こる風にも
わたしは苦しんだ。
星をうたう心で
すべての死んでゆくものを愛さなけれ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みゆかねば。

今夜も 星が 風にさらされる。